

광주시·전남도 산하기관장 공모 잇따라

광주 환경공단이사장 등 4곳... 전남 정보문화진흥원장 등 2곳
핵심 기관 물갈이 본격화... '낙하산 인사' 논란 커질 듯

광주시·전남도 산하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 공모가 잇따라 진행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로 단체장이 교체된 광주·전남도의 '핵심 기관 물갈이'가 본격화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수장들의 사퇴로 공석이 된 산하 공공기관은 광주 도시철도공사 사장,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광주복지재단 대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등 4곳이다.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직은 지난해 시장 캠프 출신 정상용 전 국회의원을 내정했다가 시의회 청문회 과정에서 자질 논란으로 자진사퇴하는 파동을 겪었다. 이에 따라 광주환경공단은 '이사장 모집공고'를 내고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은 최근 2차례 공모절차를 거쳤으나 '적격자 없음' 결정이 내려져 최근 3차 공모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류전형에 9명이 접수해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어 있다.

또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말 전임 사장이 자진사퇴하면서 지난해 27일자로 사장직과 기술본부장, 비상임이사 등 임원 후보 모집공고를 냈다. 오는 11일까지 원서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최근 말썽이 일었던 광주복지재단은 대표와 사무처장, 주요 간부진들이 동시에 공석이 되면서 공모 규모와 절차가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 대표와 사무처장이 자진사퇴한 데 이어 재단 1·2급인 본부장 2명이 시감사에서 비위 사실이 드러나 계약해지 처분 요구를 받았다.

이 밖에도 광주시는 민주인권평화국장·

노동협력관·대변인·문화예술회관장 등 간부급 4개 자리에 대한 개방형 직위 공모에 나서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다.

전남도는 강진의료원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강진의료원장 공모에는 3명이 응모해 면접을 마친 상태다. 이 중 2명을 추천하면 전남지사가 최종 확정하게 된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10명이 응모한 가운데 지난 8일 서류 심사를 마치고 오는 22일 면접을 진행한다. 확정은 1월말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설 승차권 예매 북적

9일 오전 광주송정역에서 시민들이 호남선 설 승차권을 예매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시 감사위 민간공원 2단계 문서유출 뒤편”

감사 결과 발표 후 관련 공무원 신분상 조치 안해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민간공원 2단계 문서 유출과 관련, 감사를 진행하고도 정작 관련자에 대한 처리를 미루고 있어 “문서 유출 사건을 덮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의료기업 ‘메드라인’의 광주 투자 기업정보가 외부로

무단 유출된 것과 관련해 감사 도중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는 점에서 감사위의 ‘이중 잣대’ 논란도 커지고 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민간공원 특례개발 2단계 특정감사 결과를 지난해 12월 발표하고도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담긴 최종 감사보고서는

내놓지 않고 있다.

감사위는 당시 관계 공무원이 평가 관련 서류를 광주시의회 관계자에게 제공하는 등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제안서 평가점수 등이 사전에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었다.

하지만 한 달여가 지나도록 관련자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의혹을 사고 있다.

광주시 내부에서도 “통상 감사가 진행

되면 행정적으로 바로잡는 행정상 조치와 그에 따른 징계를 내리는 신분상 조치가 함께 이뤄지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민간공원 2단계 감사와 관련된 이번 감사위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위 관계자는 “민간공원 2단계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서 시간이 촉박해 행정상 조치를 먼저 내린 것이며, 신분상 조치는 1월 말께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남도한바퀴’ 겨울 낭만여행 상품 출시

전남 낙조·야경 테마 12코스
12일~2월 23일까지 운행

전남 관광지 광역순환버스 ‘남도한바퀴’ 겨울 테마상품이 새로 출시됐다.

전남도는 겨울 여행객을 겨냥해 남도의 낙조와 야경을 테마로 한 남도한바퀴 겨울 테마상품 12개 코스를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운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용 요금은 9900원이다.

‘순천·여수 겨울바다여행’은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안성맞춤이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순천 낙안읍성을 거쳐 넓고 탁 트인 여수 겨울바다의 매력에 흠뻑 빠져볼 수 있다. 특히 여수 예술랜드에는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 조각공원과 사진 찍는 재미가 특색한 3D 트릭아트 뮤지엄이 조성돼 아이들과 함께 즐기기에 좋다.

‘무안·신안 겨울생태여행’도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신안 증도에서 갯벌 따라 걸어보고, 해 질 녘엔 소금밭 낙조 전망대에서 노을을 감상하며 추억을 쌓을 수 있다.

친구들과 함께 ‘영암·강진 역사문화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다. 먹거리 ‘놀거리’ 가득한 강진 마량 놀토수산물장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가우도의 청자타워에서 해변 절경과 아름다운 낙조를 배경으로 ‘인생샷’도 찍을 수 있는 상품이다.

‘목포·함평·영광 감성 여행’은 영광 백수해안도로와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절경과 노을을 감상할 수 있다.

이밖에도 해변 일몰이 아름다운 해남 목포구동대, 트래킹 명소인 화순 만연사 오감연결길, 진도 밤바다와 울돌목이 한눈에 보이는 진도타워, 조선시대 봉화를 재현한 광양 구봉산전망대 등 따뜻한 남도의 겨울 관광지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남도한바퀴는 관광객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광주종합버스터미널(유스퀘어)에서 출발, 광주송정역을 경유해 운행한다. 올해로 운행 6년 차인 ‘남도한바퀴’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26개 상품 1077회 운행해 3만8640명이 이용했다. 45인승 버스 1대당 평균 36명이 탑승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자세한 코스 검색과 예약은 온라인(citytour.jeonnang.go.kr)과 전화(☎062-360-8502)로 할 수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고흥 웰빙유자 특구·석류 특구 5년 연장

고흥군은 9일 “웰빙유자 특구·석류 특구 지정이 5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웰빙유자 특구와 석류 특구지정의 5년 연장을 요청해 최근 수용됐다.

2014년 지정받은 웰빙유자 특구와 석류 특구가 지난해 말로 지정 기한이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고흥군은 특구지정 연장과 함께 87억원의 사업비 증액도 받아 들여져 저 지역의 유자·석류 산업이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특구지정 연장을 통해 ‘고흥 유자 체험 마을 조성’과 ‘유자 부산물 자원화’ 등 24개 신규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자·석류 국내 최대 생산지인 고흥은 2014년 특구지정에 힘입어 생산기반 혁신화·가공유통 산업화·관광홍보 활성화 등에서 지역산업 혁신을 이끌어왔다.

고흥군 관계자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을 통해 정부로부터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받아 발전을 거듭해 왔다”며 “특구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흥 웰빙유자·석류 특구는 2016년 7월 160개 지역특화발전 특구 평가에서 전국 1위, 최우수 특구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체납자 실태조사·자동차 체납자 영치반 운영

광주시는 9일 “시민 50명이 참여하는 ‘체납자 실태조사·전화 납부 안내반’과 ‘자동차 체납자 영치전담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혹서기인 7~8월을 제외한 3월부터 10월 기간에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들은 세무공무원 50명과 함께 체납액 납부 전화 안내 및 실태조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활동을 한다.

특히 체납고지서 송달 등 기초적인 체납 징수 독려만을 해온 소액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인 납부 안내를 한다.

이와 함께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재산압류와 공개처분, 명단공개, 출구금지,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선로 걱정없는
엘림형 태양발전소

선착순 분양

‘최소 25년 이상’
마르지않게 정성들인 노후 연금식
엘림형 태양광발전소

태양광 100Kw	동식물재배사 위탁,영농(임대)
년 4,000만원 이상 수익가능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자기자본 투자금 대비
년 40% 수익 기대

현금 투자 ▶ 1억 3천 2백
현금 투자금 회수기간
▶ 최단 2년 6개월 가능

계약금 1천만원
선착순 50개소 접수 중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